

◆며느리권씨 일전 9-1

유한당 권씨(柳閑堂權氏, 추밀공파 28世)

코리아 카톨릭의 개조 이벽(李榮)의 부인, 유한당언행실록(柳閑堂言行實錄)의 주인공

코리아! 조선의 카톨릭(天主教)은 자주적 기반위에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성립하였다. 이는 조선조 말기 유교의 부폐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선진적 인물들의 노력(보유론補儒論)에 의해 연구되어졌고 이로 인한 희생은 외세의 침략이라는 측면과 기득권의 반발이라는 구도속에 이루어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동학혁명군을 불러오고 드디어 망국으로 가고야만다.

그 핵심 주인공은 일찍이 다산 정약용이 정조대 왕에게 설명한 중용의 구절이 매우 흡족하자 정조가 '다산의 뒤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고치한 것 같군'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바로 경주이씨 명문가의 천재 '이벽'이다.

그가 두 살 위인 권씨와 결혼한 것은 16살이고 이후 25살경(?)에 권씨가 사망하니 그에 허무를 느끼고 천주학에 더욱 빠졌다라는 말이 있다. 조선말에 서울(漢城)에서 가장 심한 육이 '천좌(천주학) 할 놈'이었다. 천주학을 하면 멀

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벽은 요즘 시대로 비유하자면 자생적 '좌익분자(?)'로 의식화를 여기 저기 시키다가 주변 여러 명문집안을 망친(?) 인물 정도라고 할 수도 있다.

정약용 일가도 사돈이고 권일신 일가는 친인척은 아니나 결국 이벽이 천주교를 전도하여 일족이 멀하게된다. 일설은 권일신의 사위가 이벽이라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이벽의 누나가 정약현의 부인이고 정약현은 정약용 형제의 이복 형제들이고 이승훈은 정약용 누나의 남편이고 정약현의 사위가 황사영이고 정약현의 삼녀가 홍재영이고 그의 형은 홍난민. 아들은 홍난수, 정약종의 부인이 유소사. 그 자식들이 정철상, 정하상, 정정혜이다. 정약용의 친삼촌 윤경의 아들이 윤지중이요. 윤지중의 외사촌이 유향겸, 그 아들이 유중철, 유중철의 부인이 이순이, 외사촌 권상연이다. 이들 전부 사형에 처해지고 천주교에서 성인(聖人), 복자(福者)로 되었으나 당시 입장에서는 이벽 하나 때문에 일족을 망친 셈이다. 그런데 정작 그 당시자 '이벽'은 아직 복자(福者)로 되지 않은 상태이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약용도 그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순교자 광암(曠庵) 이벽(李榮)



광암 이벽 기념 성당

이벽(李榮, 1754~1785)은 조선 후기의 천주교 신자이며 이승훈, 권일신등과 함께 조선 천주교회를 창설한 주역으로 호는 광암(曠庵), 자는 덕조(德祚) 또는 벽(榮), 본관은 경주,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정약용, 정약용, 권철신, 이승훈 등과 함께 천진암(眞眞庵)에 모여 학문(천주학)을 연마하였고 독학으로 천주교 교리를 암시한 신자가 되었다. 1785년에 명례방(明禮坊) 사건이 발생하자 부친에 의해 가택연금 되었다가 사망(의문사)하였다. 현재 그가 복자로 인정 받지 못하였지만 1979년 그의 묘를 발견하고 유해를 보니 치아가 검은 것으로 볼 때 독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포천의 기호학파 남인 집안에서 부친 이부만(李簿萬, 1727~1817)과 청주 한씨 사이의 6남 매운 둘째 아들로 태어 났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문인이었으나 조부 때부터 무과에 급제하여 무반 집안으로 유명해졌다. 이벽의 형과 동생은 무과에 합격하여 황해병마절도사(군사령관)와 좌포장(특수부대장)의 직책을 맡았다. 이벽은 신체가 건강하고 키가 8쪽에 이르며 흰은 장사였으나 형제들과는 달리 과거시험에는 뜻을 두지 않고 학문(儒學, 天主學)에 전념했다. 언변이 청산유수로 달변이었다. 정약현이 자령이 된 후에는 그의 동생 정약용, 정약용 형제와 어울려 학문 연마에 노력했다.

이벽이 천주교를 접하게 된 것은 6대조 이경상이 병자호란에 인질로 심양에 잡혀간 소현세자를 모셨는데, 귀국할때 아담 살로부터 선물받은 천주교 서적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집에 내려오다 이를 보게 되면서 부터이다. 독학으로 교리를 깊이 익히고 묵상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1770년에는 천진암에 들어가 약 15년간 서학과 천주교리 연구에 매진

했다. 그의 부친은 종명한 차남이 과거를 포기하고 그려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조선 사회는 천주교를 종교가 아닌 학문(西學)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남인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소외감(權力脫落)에서 벗어나고 유학의 모순을 극복 할 보유론(補儒論)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1777년(정조1년) 권철신, 정약용, 정약용, 이승훈 등은 외딴 절에서 천주학을 비롯한 서양학문 강습회를 했는데 이벽도 이 때 합류한다. 이벽은 당시 신앙심이 생기고 지식도 상당하여 모임을 주도하게 된다. 주일(主日)을 제정하여 지켰다. 양력이 도입되기 전이라 음력으로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을 주일로 정하였다. 선교사의 전교 없는 자생적 신앙 단체가 생겼나니 했으나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진리탐구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북경에 가게 되자 이승훈을 동행하도록 하여 돈까지 모아주었다. 북경에 있는 천주당을 찾아갈 것, 교리와 그 실천 방법을 배울 것, 세례를 받을 것을, 천주교 서적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1783년 11월에 중국에 도착한 이승훈은 이벽이 상세히 일리준데로 하였고 세례를 받은 후 많은 책들을 가지고 1784년 귀국하였다. 이벽은 다시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천주교인이 되었다.

다음 권철신, 권일신 형제를 설득하여 천주교에 입교케하고 중인(中人)들이 최창현(崔昌顯), 최인길(崔仁吉), 김종교(金宗教), 김범우(金範禹), 지황(池璜) 등에게 전교했다. 성호 이익의 종손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은 당대 최고의 천재로 성호학파의 학통을 잇고 있으며 남인을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천주교에 반대했지만 이벽과 격렬한 논쟁후 천주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남자 양반들을 대상으로 전교하였으나 점차 중인, 상인, 부녀자들에게도 전교하였다. 부녀자들의 전교는 이벽의 부인 유한당 권씨(柳閑堂 權氏), 이승훈의 부인 나주 정씨, 권일신의 부인 광주 안씨등 양반 신자들의 부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벽의 사망 원인



이리다가 정부의 단속을 받고 이벽은 아버지에게 잡혀 별당에 감금되고 밥도 안준 상태에서 굶 죽었다고 발표한다. 그의 부친은 명문가를 망친 아들을 원망하고 경주 이씨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가문의 압력에

차라리 죽을 것을 명하니 이벽이 '그러면 아민겠다.'고 했다는 말도 있다. 사망원인은 얼굴이 깨끗해지니 흑사병(페스트)으로 죽었다고 엄부린다. 당시 페스트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신다면 안민겠다.'고 한말이 복자 시복에서 제외되는 벌미가 된다. 이는 조선의 가족관계와 제도를 오해한 로마교황청 서양인들의 이해부족이기도 하고 실제 그 집안이 지어낸 일종의 '가짜뉴스'로 보기도 한다.

페스트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비상(毒藥)을 마시고 죽은 타이에 의한 자살'이 맞는 것으로 그의 시신을 발굴한 후 부터는 정설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코리아카톨릭이 생기고 103명의 성인(聖人), 124명의 복자(福者, 準聖人)가 나왔으나 최양업 신부와 함께 아직 심사 대기중이다. 그의 세례명인 '세례 요한'처럼 정작 신앙의 길을 열어간 선구자로서만 만족 할 것인가?

그를 존중하는 다산 정약용의 글이 그의 위대성을 대변해준다.

묘지명(墓誌銘)에서 '자신은 이벽을 추종했고 (從李榮), 자기 형 정약전(1758~1816)은 아주 일찍부터 이벽을 추종했으며 (晉從李榮), 뿐 아니라 권일신(1742~1792)은 열성적으로 이벽을 추종했으며 (熱心從李榮), 이가환(1742~1801) 역시 이벽을 추종했다 (從李榮)'고 쓰고, 디산은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중용강의 (中庸講義)를 보충하면서 40여년 전 세상을 떠난 이벽 선생을 사모해 "나에게는 비교가 안될 만큼 출중한 덕행과 해박한 지식(道德博學)이 있던 이벽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라. 책을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 금할 수 없구나"하고 그를 그리워했다. '이벽'은 그런 인물이었다.

유한당언행실록(柳閑堂言行實錄)

유한당 권씨의 저서 유한당언행실록(柳閑堂言行實錄)은 무엇인가? 유교적 관점에서 부인의 덕을 더운 고양서이다. 내용은 마음 가지는 법, 용모 가지는 법, 몸가지는 법, 말씀하는 법, 기거하는 법, 거가하는 법, 치녀의 수신하는 법, 출가하는 법, 가장 섬

기는 법, 부모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기는 법, 자식 교육하는 법, 자부 교훈하는 법 등의 12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여사서(女四書)'나 성종의 모후 소혜왕후(昭惠王后)의 '내훈(內訓)', 영조빈 선희궁(宣禧宮)의 '여범(女範)'과 비슷하지만 유교적인 데서 천주교적 입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윤민구 신부는 '초기 천주교회사의 쟁점 연구'에서 성교요지/십계명/만천유고/이벽전/유한당 언행실록은 사기다'라는 부제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행록에 비하여 서민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쉬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다.